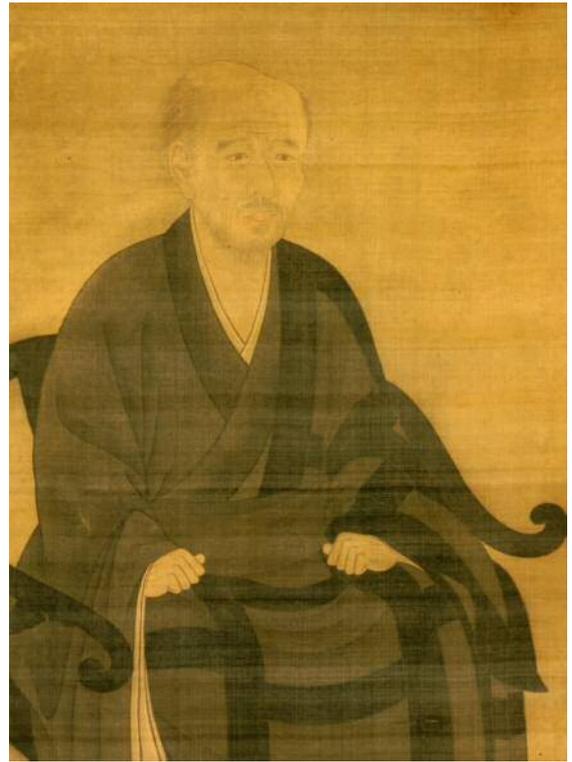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도카이지 절과 다쿠안

다쿠안 소호

에도 막부의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개창한 반쇼잔 도카이지 절의 초대 주지로 초빙된 다쿠안 소호는 17세기 초에 활약한 선종 승려입니다. 1573년에 다지마노쿠니 이즈시(지금의 효고현 도요오카시)에서 태어나, 교토와 그 주변 지역에서 빈곤 속에서도 수행을 쌓아 1609년에 교토에 있는 다이토쿠지 절의 153대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에도 막부의 종교 정책을 비판하여 1629년에 데와노쿠니(지금의 야마가타현과 아키타현)로 귀양을 갑니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사망 후, 대승정 덴카이 등이 힘써준 덕에 다쿠안은 귀양에서 풀려나 에도로 돌아왔습니다. 에도로 돌아온 다쿠안은 이에미쓰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1638년에 이에미쓰는 다쿠안을 위해 새로운 절을



▲다쿠안 소호의 초상화, 도카이지 절 소장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고텐야마 남쪽에 도카이지를 창건하여 다쿠안이 초대 주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쿠안은 불교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서예·와카(일본 고유의 시)·다도·검도·병법·의학 등 다양한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도에서는 센노 소탄 및 고보리 엔슈, 검도에서는 야규 무네노리, 무네후유 부자 등 그 분야의 저명인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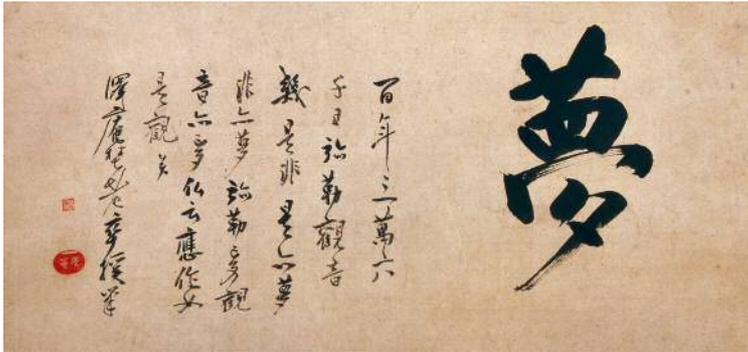
1645년, 다쿠안은 「夢」, 꿈 몽자 한

글자를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도카이지의 묘지에는 고보리 엔슈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커다란 자연석을 놓은

다쿠안의 묘가 있습니다.



▲다쿠안 소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글씨 「夢」
도카이지 절 소장



▲다쿠안 소호의 묘소

도카이지 절의 경내

도카이지는 약 157,000㎡에 이르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절 안에 17개의 탑두(塔頭)가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시나노(지금의 나가노현) 마쓰모토성의 성주 훗타 마사모리의 린센인 사원, 오바마번(지금의 후쿠이현 오바마시 주변) 번주 사카이 다다카쓰의 조쇼인 사원, 구마모토번(지금의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변) 번주 호소카와 미쓰나오의 묘겐인 사원, 소노베번(지금의 교토부 난탄시 주변) 번주 고이데 요시치카의 운료인 사원, 데와번(지금의 야마가타현과 아키타현) 번주

도키 요리유키의 순우안 암자 등 다이묘 가문이 창건한 탑두도 있었습니다. 또한 메구로가와 강에 다리를 놓고, 다리 건너편에는 몬젠마치(절·신사 주변에 형성된 마을)가 조성되었습니다.

도카이지는 1694년 3월에 시나가와 역참에서 시작된 화재로 전소했지만,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와 그 모친인 게이쇼인에 의해 이내 재건되었습니다.

현재의 도카이지는 과거 탑두였던 겐쇼인(구 린센인) 사원이 도카이지의 명칭을 이어받았습니다.



▲도카이지 평면도(1660년, 도카이지 절 소장) 도카이지 절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평면도